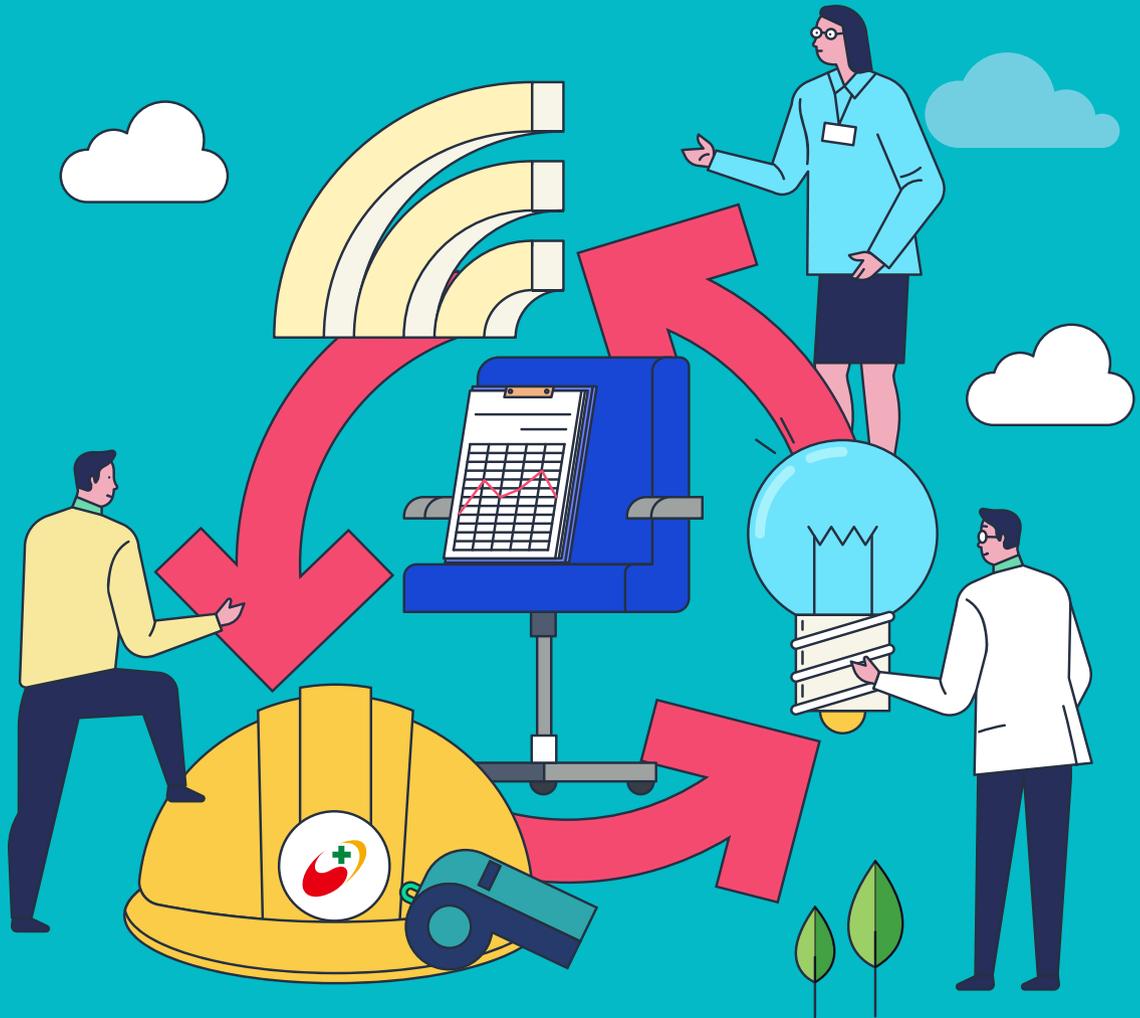


철저한 실천 없이 무재해는 없다





1. 개별 작업장 · 작업자에게 관심을 갖고 철저한 실천을

안전관리를 위해 여러 방침을 정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안전활동을 실행하고 있다고 해도 일단 사고 ·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각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따라서 안전활동의 실효를 거두려면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활동은 담당부서 내 담당업무에 적합한 ‘매일의 실천활동’이 되어야 한다. 작업 중에 필요로 하는 안전(배려)을 업무 내에 포함하고 최고경영자부터 현장작업자까지 모든 구성원이 담당업무에서 안전(배려)을 끈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무재해를 향한 첫걸음이다.

무재해를 지속하려면, 작업장 내의 모든 사람이 철저히 안전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과정에서는 많은 곤란이 수반되기도 한다.

혹 관리 · 감독자가 일터를 관리하면서 ‘철저’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관리 · 감독자가 작업자의 실수에 “앞으로 철저히 하자”라고 결의를 표명한다거나 안전보건계획에서도 ‘○○의 철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철저히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저’라는 말은 공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허한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

사업장 무재해 운영을 지속하려면 여러 가지 안전활동 중에서도 당장 필요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작업장 및 작업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열심히 궁리하면서 안전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실행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매년 많은 사업장이 안전보건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에는 최고경영자의 방침과 안전수준의 레벨업을 위해 각 작업장에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추진항목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사업장끼리 통일이 안될뿐더러 어떻게 하더라도 작업장 간의 수준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다음 연도의 계획을 수립할 때 앞서 제시한 대부분의 추진항목이 중간에 흐지부지되어버렸다는 것에 깊은 반성을 하지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한 실시항목마다 목표와 월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작업장에서의 안전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실시항목마다 월별로 전개한 실행계획을 작성해 보면, 채택한 모든 항목을 꾸준히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계획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시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3. 연수 후에는 실행계획 만들기

많은 안전연수에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그룹토의 때 토론한 결과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연수 중에는 강의, 그룹토의 등에서 배운 것을 본인의 사업장에서 실천하려고 마음먹다가 직장으로 돌아가면 매일의 생산, 공사의 진척 등 책임자로서의 다망한 일에 쫓겨 연수회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사항은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수의 성과를 매일 업무 때, 의식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수 과정 중에서 습득한 실천 사항을 정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한 실시항목
마다 목표와
월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작업장에서의
안전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요하다. 그러나 실천 사항의 항목만을 정해놓아서는 적절한 실천으로까지 연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을, 언제(언제까지), 어떻게'를 생각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안전연수의 마지막 타임에 각자가 앞으로 실천할 사항 1~3가지 항목을 채택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에 돌아가 상사에게 연수결과를 보고하고 연수회에서 작성한 실행계획을 실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이를 평상시에 눈에 잘 띄는 책상 위에 놓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매일 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행계획서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매 월 말에 실천상황을 체크하고, 진척상황, 향후의 다짐 등을 붉은 글씨로 기록하거나 표시하면 된다.

4. 형식에 혼을 불어넣어야

안전활동을 좋은 형식으로 짜서 실행하고 있다고 해도 수단과 목적을 그르치면 사고·재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활동을 사고·재해방지의 실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적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적호칭(指摘呼稱)은 단순히 큰 동작과 큰 소리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적호칭을 하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작업의 요소 하나하나가



안전보건 연수를 다녀와서 할 일

- ①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 ② 연수결과를 상사에게 보고
- ③ 실천하겠다는 의사표명
- ④ 책상위나 게시판에 게시
- ⑤ 실천사항 체크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안전한 행동에 도움이 되는 지적호칭이 아니면 이를 실행하는 의미가 없다. 위험예지활동(훈련)을 하는 것도 수단이고, 목적은 개개인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전원 참가에 의해 안전을 선취(先取)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단위작업마다 작업절차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작업절차서를 만들어 놓은 채 이를 실제 작업행동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작업절차서를 작성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작업절차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단이고, 모두가 작업절차서 대로 올바른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안전활동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도록 유의하고,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많은 직장에서 “안전활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형식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훈련에 의해 기본적인 안전활동 ‘본연의 자세’를 습관화하여 일상 업무 중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배운 대로만 행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활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재해의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배운대로 해 본다. 그리고 활동에 혼을 불어넣기 위해, 본인이 속해있는 작업장 실태에 맞추어, 지혜를 짜내가면서 골똘히 궁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이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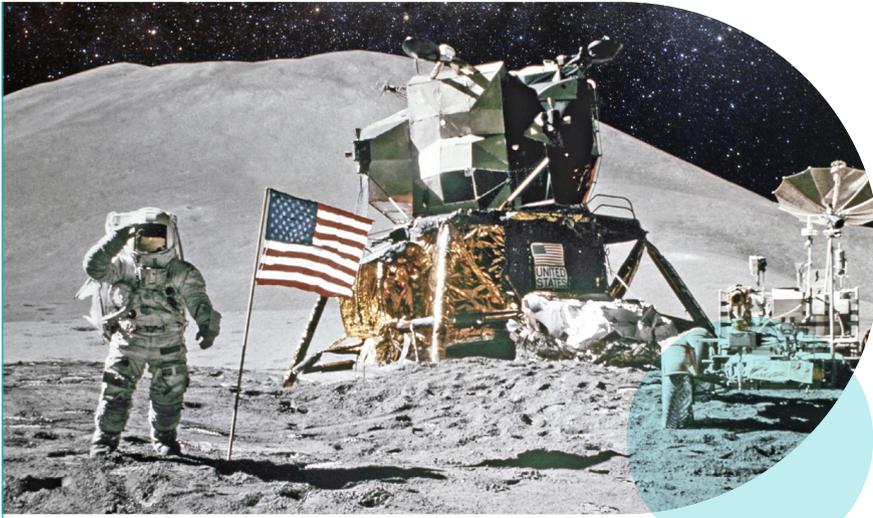
활동에 혼을 불어넣기 위해, 본인이 속해있는 작업장 실태에 맞추어, 지혜를 짜내가면서 골똘히 궁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 개선’이 중요한 것이다.

5. 안전지표에서 변명은 불필요

안전진단에서 지적받은 불안정한 현상을 넘겨버리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감독자가 적지 않다. 작업장의 책임자로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중 감독자 중에는 종종 견학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로부터 “저 작업은 위험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괜한 말을 한다”라거나 “작업장의 실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발심이 드는 이도 있을 것이다.

좀 더 안전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 생각하고, 제3자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넘기는 태도를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들의 지적을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를 작업장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선을 체크해 두면 된다.



안전진단에 동행하는 현장 담당 관리·감독자 중에서는 개별 현장에서 나오는 지적사항 전부를 메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자세가 안전에 대한 결여다. 지적사항의 수가 적으면 기억해 둘 수 있을 테지만, 지적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린다. 모처럼 지적받는 것이라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지적사항을 메모해두자. 현장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작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이기 때문에, 모두 메모하여 둔 다음 나중에 직장의 관계자가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지적도 반드시 메모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6. 안전관리 활동에 지혜를

어떤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사장실 옆 회의실에 다음과 같은 문언(文言)을 큰 종이에 써서 게시해 놓고 있었다.

‘지혜를 짜내라. 지혜가 없는 자는 땀을 내라. 땀도 없는 자는 쓸모없다.’

엄혹한 기업경쟁을 극복하고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경영자의 비통한 생각을 해당 문구에서 느꼈다. 냉엄한 기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혜를 짜내어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직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장 내 안

현장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작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이기 때문에, 모두 메모하여 둔 다음 나중에 직장의 관계자가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관리의 방법과 추진하고 있는 직장 안전활동이 사고·재해 방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7. 아폴로 11호의 교훈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경악하였다.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디며, “이것은 한 사람의 인간에 있어서는 작은 일보이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비약이다”라고 한 말은 아직도 많은 이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을 정도이다. 당시 언론은 매우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우주로켓이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음의 두 가지 노력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첫째는 여러 고도의 기술 분야에서 파생된 기술을 로켓에 적용한 것이다. 또 하나는, 로켓 개발에 착수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넸던 “May I help you?”라는 말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땀을 흘린 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풍토가 성공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들의 직장에서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동료, 상사, 부하와의 일상 속 대화에도 분명 회사 작업에 도움이 되는 말들이 의외로 많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보고 듣는 것, 언론보도, 하다못해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좋은 정보가 숨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른 회사나 사업장을 견학할 때에도 잘 보고 잘 귀담아들으며 본인의 안전관리활동 및 작업현장의 안전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동료, 상사, 부하와의
일상 속 대화에도
분명 회사 작업에
도움이 되는 말들이
의외로 많다.

